한국기자협회 "기자 폭행 이영훈 전 교수 규탄" 성명

김달아 기자 2019.08.12 16:19:09

한국기자협회가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규탄하고, 경찰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.

앞서 지난 4일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'반일 종족주의' 출판물의 대표저자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았다. 이날 MBC 기자와 만난 이 전 교수는 고함을 치고 녹음 장비를 내리쳐 파손시키는가 하면 취재기자에게 폭력까지 가했다.

이에 대해 한국기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"이 전 교수는 강압적 태도로 취재진을 위협했음에도 오히려 다음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'정당방위'라는 주장으로 사건을 호도하기까지 했다"며 "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언론자유를 방해한 이영훈 전 교수의 행동과 언사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"고 했다.

한국기협은 "이 전 교수는 지금이라도 피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"며 "경찰은 이번 취재 기자 폭행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"고 밝혔다.

다음은 성명 전문.

언론에 대한 취재방해와 폭력을 행사한 이영훈 전 교수를 규탄한다

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하던 기자가 또 다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.

MBC기자회에 따르면 MBC 스트레이트팀은 최근 한일 관계가 민감한 가운데 '반일 종족주의' 출판물의 대표저자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취재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답을 들을 수 없어서 지난 4일 이 전 교수 자택 앞에서 그를 만나 취재경위를 전하고 취재를 요청했다고 한다.

그러나 이영훈 전 교수는 이 과정에서 취재기자에게 고함과 함께 녹음 장비를 내리쳐 파손시키고 심지어 취재기자를 손으로 내리치는 폭력행위를 가했다.

더구나 폭언과 강압적 태도로 취재진을 위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음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'정당방위'라는 주장으로 사건을 호도하기까지 하였다.

한국기자협회는 취재기자를 폭행하고 언론자유를 방해한 이영훈 전 교수의 행동과 언사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.

Adobe Flash Player이(가) 차단되었습니다.

많이 읽은 기사

1 JTBC, 2014년 이후 영향력 첫 하락... 조선
2 MBC 기자회 "이영훈 교수 취재진 폭행 규탄
3 제일 밋밋한 지면의 대반전... '핫플레이스'...
4 한국기자협회 "기자 폭행 이영훈 전 교수 규
5 매경 '이렇게 만들죠' 한콘진 주관 뉴미디어
6 정치적 이해 따라 재단... '가짜뉴스'의 진짜...
7 작년 디지털 구독 수입 964억원... 노르웨이
8 고양이랑 사는 40대 남성의 생활에세이
9 서울신문·호반건설 전면전 돌입
10 '쑨양 패싱'이 남긴 것

대한민국의 미래인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학자라면 본인의 저서 및 이론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설명하고 토론하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하여야 한다. 그럼에도 폭력을 앞세운 행동은 학자로서의 품위까지 의심케 한다.

이영훈 전 교수는 지금이라도 피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. 또한 경찰은 이번 취재 기자 폭행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.

2019년 8월 12일 한국기자협회

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

→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

TOP

Copyright @2004 한국기자협회. All rights reserved.

최신 기사

1 "우리 가치를 지지해달라" 후원제 실험... 언...

2 뉴스룸 온 포털·IT출신 양극화... 간부 아닌...

3 작년 디지털 구독 수입 964억원... 노르웨이 `...

4 고양이랑 사는 40대 남성의 생활에세이

협회소개 | 광고안내 | 구독신청 | 제휴안내 | 찾아오시는길 | 저작권문의 | 청소년보호방침 | 개인정보취급방침 |

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

우)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층 1303호 한국기자협회
TEL 사무국 : 734-9321~3 , 편집국 : 02-737-2483 | FAX: 02-738-1003
Copyright @2004 한국기자협회. All rights reserved.

powered by 한국언론진흥재단